

의견서

(지명팀 선정 총평)

총평

이번 충주시립미술관 국제지명설계공모 지명(신청)공모에는 국내외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의 유능한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높은 관심과 건축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48개 팀의 신청 가운데 최종적으로 국내 1팀, 해외 1팀을 지명 건축가로 선정하였다.

해외 건축가의 경우 대중적 인지도와 함께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선지명된 건축가들의 국적이 일본과 유럽인 점을 감안하여 국적 분포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 국적의 Steven holl 건축가(단독)를 만장일치로 지명하게 된 것은 다양한 미술관 프로젝트 경험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명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력을 통하여 충주시립미술관을 위하여 최고의 작품을 제안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국내 건축가의 경우 다양한 유사실적을 보유한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하였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각각 3팀씩 운영위원의 개별적 추천을 받아 의견을 통합한 결과, 민성진(단독), 이규상(팀), 민현준(단독) 건축가가 높은 추천을 받았으며, 그중 모든 운영위원이 만장일치로 민성진 건축가를 최종 지명 건축가로 선정하였다. 민성진 건축가는 다양한 민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독창적 건축 언어를 축적해 왔고, 이러한 역량이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지명 6팀 선정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적 맥락을 반영한 다양한 작품을 이끌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지명된 6개 팀이 제안할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설계안을 통해 충주시립미술관이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응모해 주신 모든 건축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년 9월 25일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지명팀 선정에 대한 총평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